

光日春秋

이우영



북한에서 제작된 드라마 '사육신'이 지난 8일부터 방송되고 있다. KBS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제작을 시작한지 2년여만의 일이다.

사육신은 명실상부한 최초의 남북한 합작 드라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다양한 방송교류가 있어왔다.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협조가 있었고, 보도부분에서도 현지 진행 방송 등이 시도되어왔다. 또한 태조왕건의 오프닝 장면 등을 현지에서 촬영하는 등 드라마 부분에서도 부분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사육신의 경우는 그 동안 남북이 쌓아올린 신뢰와 교류과정에서 이해하

게된 상대방의 기술적 문화적 특성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KBS는 이번 '사육신' 제작을 위해 북측 합작 드라마의 기술적 문화적 특성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합작 드라마 사육신 유감

한 총 21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70만 달러가 현금이며 140만 달러는 방송권비다.

또 카메라 기술, 조명, 세트, 의상, 분장, 디지털 오디오 편집 기술 등 각종 방송 기술을 북측에 전수되었고, 이는 향후 북한의 드라마 제작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사육신은 시청자들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 7%대로였던 시청률이 3주가 지나면서 2%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TV방송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국가 시청률'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것은 낮은 배율, 이해하기 어려운 억양과 말투, 느린 진행 등이 남측의 시청자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드라마도 그 정도의 시청률을 보인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육신이 겪는 문제가 단순히 작품자체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시청자 게시판에 보면 드라마 제작과 방영을 '피주기'의 결과라고 하면서, 법적 제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적 차이가 드라마를 외면하는 원인이라는 사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경향 즉, 문화적제국주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지불한 비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남한의 드라마 제작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제작비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총 비용 가운데 제공된 방송장비는 앞으로의 방송교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문화적 차이가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획일성, 문화적 배타성이라는 작품의적 이유에서 '사육신'을 외면하는 한 앞으로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없는 한 심지어 완벽한 합작 드라마라도 방송을 타기 어려울지 모른다.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접촉이 남북간의 거리감을 확대시킬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남 기초의원 연봉 인상 추진 염치없다

전남지역 기초의원 의원들이 연봉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8일 열린 전남 시·군의회 의정협의회에서 현재의 연봉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최소한 사무관급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의 연봉이 많다는 것은 아니다. 전남지역 시·군의회 의원 연봉은 광양시가 2천883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강진군이 2천220만원으로 최하위다.

하지만 당초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경된 것이 올부터다. 유급제를 도입한 취지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 없이 연봉 인상을 내세우는 것은 명분도 실력도 없다.

유급제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재정도 걸림돌이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인데다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전남 시·군의회는 연봉 인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연봉을 올릴 재원이 있으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 좋다.

실물지표 호조 경기회복 본격화되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이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고용 및 소비지표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17.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가 기대치보다 6월보다 1.6%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9.8% 올랐다. 하반기 들어 계속된 증시의 상승과 수출·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의 호조 등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이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고용 및 소비지표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원화 값 상승 억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모처럼의 고국 방문 기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한국은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인 것 같았다.

어쩔지 씁쓸하다. 정상적인 선교의 열매라기보다는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으로 인한 싸움과 분열의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 잘못된 '학벌 따지기' 버리자

큰 문제는 인품이나 능력보다도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그런 사회 풍토가 근본원인 제공자 아닐까.

주는 용돈이나 음악,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많은 것 같았다. 너무 무표정하다. 미국을 비롯, 세계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시선이 마주치면 '하이' 하던지 그냥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라도 한다.

미국에서는 면허나 자격증조차 여부는 물어보지만 학력자제를 따지지는 않는다. 또 하나, 모국을 둘러보면서 수도 서울이 너무 비싸고 번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 아예 눈길을 돌리기도 한다. 신기할 정도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 없는 얼굴, 무표정은 신기할 정도다.

미국에서 몇 주 지내는 동안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는 한국인 항공 승무원들을 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 아닌가.

우리끼리 사는 사회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다.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허술한 보험상품구조 결국 가입자만 피해

가입도 쉽고 병원입원만 해도 입원비가 나오는 각종 보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보험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보험들로 인해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과 역수가 커지면서 보험사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보험료 인상을 부를 수 있다.

손쉽게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허술한 구조를 지닌 보험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가입자들은 이처럼 가입과 보험금 지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품들에 종종 가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다.

이들 정밀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때 보험회사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

기고

최홍준



옛그제 야간 근무중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한 가정에 간 적이 있다. 현장을 보니 거실에 밥상과 그릇이며 거실소파들이 산산이 부서져 있고 아이들은 거실 귀퉁이에서 주눅이 들어 우두커니 서 있으며 싸움을 한 당사자들은 50대초반의 부부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린 상태였다.

기토 자성의 모습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경찰지휘부의 기여있는 덕장의 모습도 절실하게 그럴 때라고 생각한다.

경찰 지휘부 덕장 모습 보일 때

처리하겠다는 돌아왔는데 이후 출동하는 일은 없었다. 두 부부가 자신들의 가정사 문제를 합심하여 슬기롭게 처리해 더이상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 들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가는 지향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찰간부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책임추궁하려는 것 자체가 "뭘 묻든 개가 뭘 묻든 개를 나무란다"며 세인들은 누구 침 뱉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경찰간부들은 겸허한 자성의 목소리로 가일층 성숙된 대법함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덕장으로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일상에 힘이 되는 생활안전의 중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투빨리 돌아오는 해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아파트 소방안전시설 보완 절차 간소화해야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연1회 이상 전문 소방시설 점검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이상여부를 소방서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30여일의 기간을 두어 보완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시설 운영 등에 있어서 법령에 의거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사항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같은 필수적인 사안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는 단독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을 연장하고자 소방서를 찾는 아파트측 책임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산집행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다.

따라서 안전시설등에 대한 보완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우선 조치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표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상설기구로서 중요 안전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는데 회의 소집이 쉽지 않고 공사의 착수에서 완료까지 수차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기타내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절차와 수단에 얽매어 목적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심지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체되어 있는 ▲나강문·광주북부소방서장

無等鼓

커피, 코코아와 함께 세계 3대 음료인 차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커피, 코코아와 함께 세계 3대 음료인 차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녹차

차는 첫잎의 산화와 발효 정도에 따라 크게 녹차와 우롱차, 홍차로 나뉜다. 영국인 1명당 1년에 2천잔을 마신다는 홍차가 전 세계 유통량의 75%를 점하고 있다.

이 밀려들면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돼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찾아낼 발표시키지 않는 녹차는 비타민C 함량이 높다. 청명 전에 따는 우전을 상품(上品)으로 치며 맑은 날 새벽 이슬이 머금은 차잎을 으뜸으로 꼽는다.

고품질, 친환경 녹차 재배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양히 보성군이 모든 차잎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오는 2009년까지 친환경 차 재배 면적을 전체 차밭의 75%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등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옛부터 녹차는 단순한 기호음료라기보다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용차로 인식돼 왔다. 동의보감에도 '차는 기를 내려주고 오래 묵은 소화 불량증을 해소하며 계속해서 마시면 지방을 제거해 비만한 사람에게 좋다'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 녹차 생산지는 단연 전남이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